

보도자료

2025. 9. 12. (금)



하노이한국국제학교

KOREAN INTERNATIONAL SCHOOL IN HANOI

홈페이지 <http://hanoischool.net/>

담당자 및 문의 : 보건실 전보라

☎ 024-7301-5338

하노이한국국제학교, FMP 국제병원과 MOU 체결

- 학생 안전·건강 지원 강화... 앰블런스 지원·의료활동 체험 등 혜택 -



하노이한국국제학교(교장 이인숙)는 베트남 최초의 국제병원인 패밀리 메디컬 프랙티스(Family Medical Practice, 이하 FMP)와 코로나 19 이후 중단됐던 교류 협력을 공식적으로 재개하며 9월 11일 MOU를 체결했다.

FMP는 1994년 하노이에 설립된 베트남 최초의 국제 기준 의료기관으로, 소아과·피부과·안과 등 전 분야의 전문의가 상주하며 24시간 7일 운영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베트남 최초로 지상 및 항공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한국어 통역 인력 2명이 상주하여 한국인 환자도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다.

- ▶ **응급 상황 지원:** 학교에서 학생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FMP가 즉시 앰블런스를 파견하며, FMP로 이송 시에는 앰블런스 비용을 무료로 운영한다.
- ▶ **행사 안전망 강화:** 올해 스포츠 한마당 행사(2025.10.31.)에 FMP는 간호사와 앰블런스를 무상 배치해 긴급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 ▶ **진로·체험 기회 제공:** 의료·보건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방학 중 병원 체험·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 진로 탐색을 돕는다.

▶ **건강 교육 확대:**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무료 건강 강의를 열어 예방의학과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FMP의 최고운영책임자(COO) 램 샤하르(Ram Shahar)는 “하노이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학교를 중심으로 보건 분야의 교류와 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노이한국국제학교는 2014년부터 FMP와 건강검진, 보건 교육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고 코로나19로 협력이 잠정 중단되으나, 이번 MOU를 통해 학생 건강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교사 전보라 선생님은 “FMP와의 협력 재개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의료·보건 분야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값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